좋아, 민서야!

드디어 수학 왕국의 첫 번째 마법 훈련이 시작돼.

├── Chapter 1. 숫자 왕국의 족보 ├── 이건 단순한 숫자 공부가 아니야. 숫자들의 역사, 갈등, 그리고 통합의 이야기야.



# 🧖 Chapter 1. 숫자 왕국의 족보

수학 왕국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바로 숫자들의 족보였어. 이 족보가 사라지자, 왕국의 질서도 함께 무너졌지. 민서는 이 족보를 되찾기 위해 숫자 마을로 향했어.

## 🦀 Day 1: 정수와 유리수, 수의 체계



아주 먼 옛날, 숫자들이 사는 왕국이 있었어요. 이 왕국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죠:

자연수족, 정수족, 유리수족, 무리수족...

하지만 이들 사이엔 늘 오해와 혼란이 많았어요. "우리가 제일 오래됐어!" "아니야.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표현할 수 있어!"

누가 누구인지. 어디까지 계산이 가능한지도 헷갈렸죠. 그래서 민서는 이 숫자 왕국의 **족보를 정리**하기로 결심했어요. 숫자들의 관계를 바로잡아야, 왕국의 질서가 돌아오니까요!

## 🦀 1. 숫자들의 족보 이야기

숫자 왕국의 가장 오래된 종족은 **자연수족**이었어요. 1. 2. 3. 4... 이렇게 셈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이죠. 이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:

"우린 태초부터 존재했어!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건 다 우리야!"

그러던 어느 날, **정수족**이 나타났어요. 자연수족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:

"왜 너희는 뒤로 못 가니? 난 -1도 되고, 0도 되고, 5도 돼! 나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숫자야!"

정수족은 자연수족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졌어요. 자연수는 정수의 일부였던 거죠.

그 뒤를 이어 등장한 건 **유리수족**.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:

"난 1/2도 되고, -3/4도 돼!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내 영역이지. 정수도, 분수도, 모두 내 안에 있어!"

유리수족은 정수족보다 훨씬 더 유연했어요. 숫자 왕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.

하지만... 이 모든 걸 초월한 존재가 있었으니, 바로 **실수족!** 

"나는 유리수도 되고, 무리수도 돼. √2나 π 같은 애들도 내 가족이지. 나는 숫자 왕국의 진정한 통합 종족이야."

민서는 이 모든 숫자 종족의 관계를 정리하며 숫자 왕국의 족보를 다시 써 내려갔어요.

#### 🦀 2. 눈으로 정리

- **자연수족**: 1, 2, 3... 셈을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종족 "우린 태초부터 존재했어!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건 다 우리야!"
- **정수족**: 자연수족에 음수와 0까지 포함된 확장 종족 "왜 너희는 뒤로 못 가니? 난 -1도 되고, 0도 되고, 5도 돼!"

- 유리수족: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숫자들 "난 1/2도 되고, -3/4도 돼! 정수도, 분수도, 모두 내 안에 있어!"
- 무리수족: √2, π처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들 "난 분수로는 절대 표현 못 해. 난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한 수야!"
- 실수족: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품은 숫자 왕국의 통합 종족 "나는 모든 걸 품은 존재야. 유리수도, 무리수도 다 내 가족이지."

#### 🦀 3. 숫자 왕국의 족보 정리

#### 📌 암기 마법

- 자연수: 1, 2, 3, ...
- 정수: ..., -2, -1, 0, 1, 2, ...
- 유리수: 분수로 표현 가능 (예: 1/2, -3/4)
- 무리수: V2, π처럼 분수로 못 나타냄
- 실수: 유리수 + 무리수
- 자연수 ⊂ 정수 ⊂ 유리수 ⊂ 실수
- 무리수도 실수에 포함됨

숫자 왕국의 질서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. 숫자 종족들은 서로를 인정하고,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죠.

민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:

"숫자들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. 다 연결되어 있고, 각자 역할이 있는 걸!"

## ◎ 4. 오늘의 퀘스트

좋아, 민서야!

그럼 오늘의 퀘스트를 더 보기 좋게, 더 강조되게 정리해줄게.

→ 문제와 정답이 확실히 구분되고, 퀘스트 느낌도 살아있게! 
→

### 🧩 퀘스트 1: 숫자 종족 분류하기 🌑

아래 숫자들을 보고, 알맞은 종족을 골라주세요!

숫자	민서의 선택	정답
-5	?	☑ 정수족
0	?	☑ 정수족
2.5	?	☑ 유리수족
√3	?	☑ 무리수족
π	?	☑ 무리수족
3/4	?	☑ 유리수족

#### ♀ 힌트:

- 정수족은 음수와 0까지 포함돼요
- 유리수족은 분수로 표현 가능
- 무리수족은 √, π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수

## 🧠 퀘스트 2: 유리수가 아닌 것 찾기 🧶

다음 중 **유리수가 아닌 것**은 무엇일까요?

선택지	설명	정답 여부
A. 1/2	분수로 표현 가능 → 유리수	×
В3	정수 → 유리수에 포함	×
C. √2	무리수 → 분수로 표현 불가	$\overline{\mathbf{v}}$
D. 0.75	3/4로 표현 가능 → 유리수	×

☑ 정답: C. √2

√2는 소수로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야!

## 🕺 퀘스트 3: 종족 포함 관계 맞추기 🬑

#### 다음 중 올바른 포함 관계는?

- A. 정수 ⊂ 자연수
- B. 유리수 ⊂ 정수
- C. 자연수 ⊂ 정수
- D. 무리수 유리수
  - ☑ 정답: C

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돼요. 음수와 0까지 포함된 게 정수족이니까!

## 🥕 퀘스트 4: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🛑

다음 중 실수가 아닌 것은?

- A. -7
- B. 0.333...
- C. √2
- D. i (허수)
  - ☑ 정답: D

허수는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수예요. 실수족에 포함되지 않아요!

### 🧠 퀘스트 5: 빈칸 채우기 🌑

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:

"모든 유리수는 \_\_\_\_\_에 포함되고, 모든 무리수도 \_\_\_\_\_에 포함된다."

☑ 정답: 실수 / 실수

실수족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품은 통합 종족이니까!

● 민서는 "숫자 족보의 두루마리"를 획득했어요!다음 마을에서 이 아이템이 식의 계산 마법에 도움을 줄 거예요.

민서는 숫자 왕국의 족보를 되찾았어요. 숫자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죠.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요...

다음 마을은 **문자 마법사**가 사는 곳! ├── Chapter 1, Day 2: 문자와 식의 마법 ├── 민서야, 다음 마법도 준비됐지? 😂



# 煮 Chapter 1. 문자와 식의 마법

숫자 왕국의 질서를 되찾은 민서는 다음 마을인 **문자 마법사**의 탑으로 향했어요. 이곳은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곳이었죠. x, y, a, b... 문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식을 만들고 있었어요.

## 🦀 Day 2: 문자와 식의 개념, 항과 계수

👉 암기 키워드: 항계상동

문자 마법사들은 민서를 반갑게 맞이했어요. 그들은 말했죠:

"숫자만으로는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없어. 우리는 **문자 마법**으로 보이지 않는 수를 다룰 수 있지!"

민서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. "x가 뭐지? 왜 숫자 대신 문자를 쓰는 거야?"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.

문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걸!

#### 🦀 1. 문자 마법의 탄생

문자 마법사들은 민서에게 식의 구조를 알려줬어요.

• **항**: 식의 조각. 예) 3x, -2

• 계수: 문자 앞의 숫자. 예) 3x에서 3

• **상수항**: 문자가 없는 항. 예) -2

• **동류항**: 같은 문자를 가진 항. 예) 2x, 5x

"우리는 식을 만들고, 정리하고, 계산하는 마법을 쓸 수 있어.

이 마법을 익히면 방정식의 문도 열 수 있지!"

#### 🏰 2. 눈으로 정리

용어	뜻	예시
항	식의 한 조각	4x, -7
계수	문자 앞의 숫자	4x → 4
상수항	문자가 없는 항	-7
동류항	같은 문자를 가진 항	2x, 5x

"항계상동"만 기억하면 식의 구조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!

### 🏰 3. 문자 마법 정리

#### ★ 암기 마법

- 항: 식의 조각

- 계수: 문자 앞의 숫자 - 상수항: 문자가 없는 항

- 동류항: 같은 문자를 가진 항

민서는 문자 마법의 기본을 익히고 식의 구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.

### ◎ 4. 오늘의 퀘스트: 문자 마법사와의 수련

좋아, 민서야!

이제 문자 마법사들이 내는 퀘스트를 풀어보자.

→ 문제와 정답이 확실히 구분되고, 마법 훈련 느낌도 살아있게! →

## 🧩 퀘스트 1: 항과 계수 찾기

다음 식에서 **항과 계수를** 찾아보세요!

• 식: 3x + 5 - 2x

항	계수
3x	3
-2x	-2
5	상수항

☑ 정답: 항은 3x, -2x, 5 / 계수는 3, -2

항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각각의 조각이고, 계수는 문자 앞의 숫자야!

#### 🧠 퀘스트 2: 동류항끼리 묶기

다음 식을 **동류항끼리** 정리하세요:

- 식: 4x + 2 + 3x 5
- ☑ 정답: (4x + 3x) + (2 5) = 7x 3

같은 문자를 가진 항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어. 숫자끼리도 마찬가지!

#### 🧖 퀘스트 3: 계수만 골라내기

다음 식에서 **계수만** 모두 골라보세요:

• 식: -6a + 4 - 2a + 7

항	계수
<b>-</b> 6a	-6
-2a	-2
4, 7	상수항 (계수 아님)

☑ 정답: -6, -2

계수는 문자 앞에 붙은 숫자만 골라야 해. 상수항은 제외야!

#### 🥕 퀘스트 4: 식의 구조 판단하기

다음 중 **항이 3개**인 식은?

- A. 2x + 5
- B. 3x 2x + 7
- C. -4 + x
- D. 5x 3 + 2x 1

☑ 정답: B (3x, -2x, 7)

항은 더하거나 빼는 단위로 나뉘어. B는 3개의 항으로 구성돼 있어!

민서는 문자 마법사들의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했어요! 이제 식을 만들고, 정리하고, 계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.

#### 다음 마을은 **괄호의 저주가 깃든 계산의 숲!**

→ Chapter 1, Day 3: 식의 계산 마법 → 민서야, 분배법칙의 검을 휘두를 준비 됐지? ≅

# 🎢 Day 3: 식의 계산 (분배법칙, 괄호 풀기)

문자 마법을 익힌 민서는 **괄호의 저주**를 풀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어.

"괄호는 마법을 봉인하는 장치야. 분배법칙으로 그걸 해제할 수 있지!"

민서는 다음과 같은 마법을 연습했어:

- $2(x + 3) \rightarrow 2x + 6$
- $-3(a-2) \rightarrow -3a+6$
- 동류항끼리 정리하기: 2x + 5x = 7x

# 🧩 Day 4: 일차방정식의 해법 (이항, 나누기)

민서는 **방정식의 문** 앞에 섰어. 문을 열기 위해선 **이항 마법**과 **나누기 주문**이 필요했지.

"양쪽에 같은 마법을 걸면,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." "해를 찾는 건, 숨겨진 숫자를 밝혀내는 일이야."

#### 예시:

- $2x + 3 = 7 \rightarrow 2x = 4 \rightarrow x = 2$
- $x 5 = 3 \rightarrow x = 8$

민서는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하고, 숨어 있던 해를 찾아냈어.

# 🧠 Day 5: 일차방정식 응용 문제

마지막 날, 민서는 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어.

"나는 어떤 수보다 2 큰 수를 생각했는데, 그게 7이야. 그 수는 뭐지?"  $\rightarrow x + 2 = 7 \rightarrow x = 5$ 

"사과 3개와 바나나 2개를 샀더니 총 1만 원이었어. 사과 하나는 얼마일까?"
→ 3a + 2b = 10000 (응용 문제로 확장 가능)

민서는 실생활 속에서도 방정식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.

# 🞉 민서의 첫 번째 마법 훈련 완료!

숫자 왕국의 족보는 다시 복원됐고, 문자 마법도 되살아났어. 민서는 이제 **함수의 길**을 찾기 위해 다음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해.